

Happy International Women's Day

03.08 세계
여성의 날





1. 3.8 세계 여성의 날 유래

1. 1857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후 50여년이 지난 1908년 3월8일 미국 뉴욕 피복 회사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146명의 여성노동자들이 화재로 불타 숨지자 여성노동자 1만5천명이 뉴욕 한복판에 모여 “빵과 장미”를 외치며 또 시위를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1857년 여성노동자들이 시위할 때와 같은 “임금인상, 노동시간 10시간 준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보장, 여성의 참정권 보장”이었다.
2.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3.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한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최악의 현장에서 일해야 했으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도 부여 받지 못했다.
4. 1909년 2월 28일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이 미국에서 선포되었고 이에 영감을 얻은 유럽에서는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 여성노동자회의에서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기 위한 ‘여성의 날’을 제안했다.
5.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1920년 여성운동가인 나혜석·박인덕 등에 의해 ‘국제 부인의 날’이란 이름으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에 의해 그 이후 기념행사는 단절됐다가 1985년에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면서 복원돼 30년 넘게 1908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의미를 기리고 있다.



2. 여성의 날과 노동 조합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도 한 세기 넘게 성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성 불평등한, 그리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싸우고 있다.

일제강점기 자본주의화가 진행 중이던 1931년,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임금삭감에 저항하기 위해 을밀대 지붕에 올라 76시간 단식농성을 했던 평양 고무 공장 여성노동자 강주룡의 투쟁이 있었다.

해방과 분단 이후 수출 위주 산업화 시기에는 동일 방직과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투쟁과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TC전자·수미다전기 등의 외자기업에서 자본 철수 저지투쟁 등이 있었다.

신 자유주의 노동정책 실시 이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보다 비정규직 고용의 우선 대상자가 됐다. 남성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임금도 남성노동자보다 적게 받았다.

2000년대 이후엔 이런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은 감정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해,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49명 우리 파업단의 賃金減下(임금감하)를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平壤(평양)의 2,300명 고무직공의 賃金減下(임금감하)의 원인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죽기로서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 나는 平元(평원) 고무 사장이 이 앞에 와서 賃金減下(임금감하)의 선언을 취소하기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곳까지 賃金減下(임금감하)를 취소치 않으면 나는 (...) 노동대중을 대표해 죽음을 명예로 알 뿐입니다. 그러하고 여러분, 구타여 나를 여기서 (집웅) 강제로 끄러내릴 생각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집웅 우에 사닥다리를 대 놓기만 하면 나는 곳 떠러져 죽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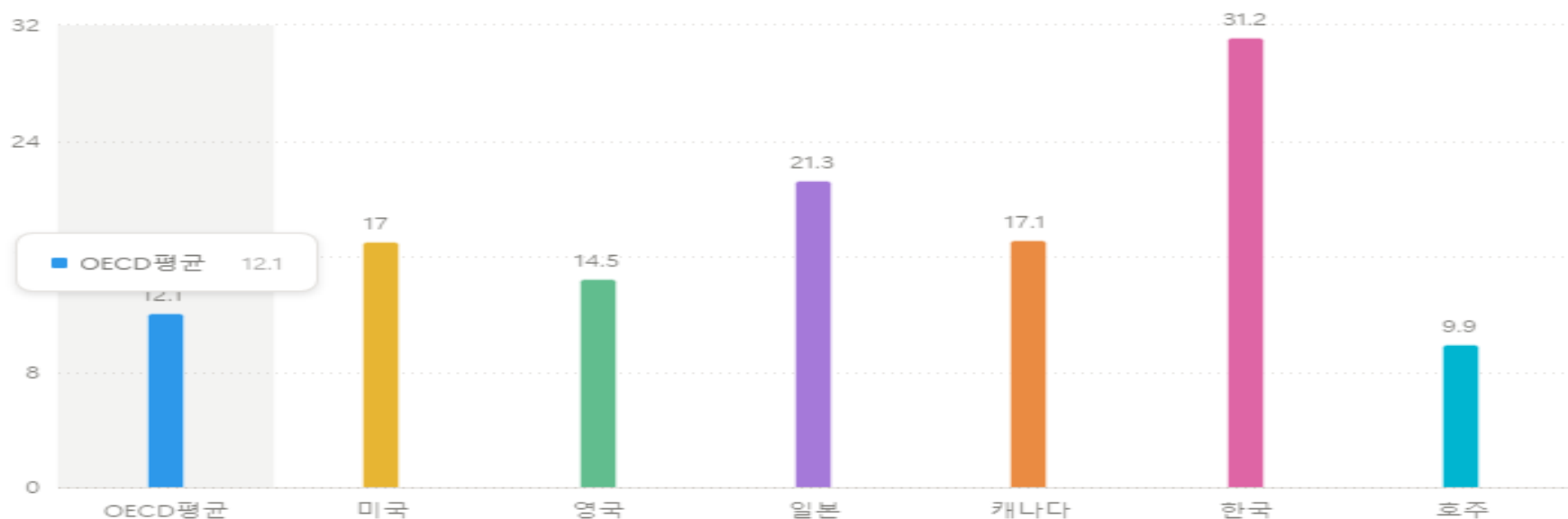
1931년. '乙密臺上の 滯空女(을밀대상의 체공녀), 女流闘士 姜周龍 會見記(여류투사 강주룡 회견기)', <동광> 23호 - 無號亭人



3. 사회적 성별 격차

1.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의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은 41.4%인데 비해 남성은 26.3%였다. 또한 남성노동자 평균임금이 100이면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65.7로 성별 임금격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단절(M자형)이 남성노동자들의 고용 단절(종모양)보다 더 많다. 그리고 여성들의 직접 정치 참여율(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16.3%, 여성 기초의원 비율 3.5%) 또한 열악하다. 아직도 사회에서 차별적 성별 분업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2. PIA, 즉 국제인구행동는, 아직도 전세계에서 해마다 51만5천명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여성의 건강보호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ILO, 즉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기업의 고위간부 등 주요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고, 성평등지수에서 70개 조사대상국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63위를 차지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 2024.1월 조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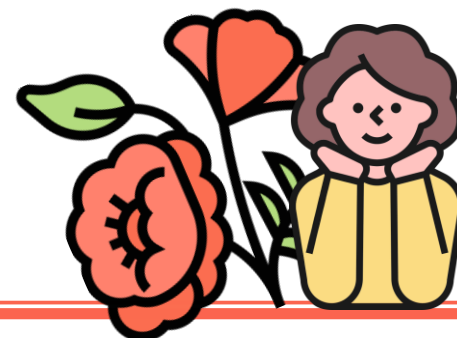


4.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 최연택 위원장

1.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여성의 날'입니다. 매년 3월 8일이면 당연히 기념하는 날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날'이 제정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관성적으로 기념해왔던 참가 태도에 한번쯤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쓴 '세계 여성의 날' 이란 칼럼을 보면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의 참정권을 요구하는데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급속도로 필요해진 자본주의는 여성과 청소년마저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여성 노동력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형편없었습니다. 참정권이 없는 것은 노예와 동물밖에 없다는 자조가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 신호와 같았던 것이 바로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3. 여성노동자 참정권 요구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하는 오늘 우리 노동조합의 지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여 년 전 유럽에서 여성 참정권 요구로 시작된 여성의 날 외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요구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앞에도 남녀 차별은 여전합니다. 차별을 극대화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행위에 맞서 우리는 힘차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1985년 7월20일 옛 동일방직 노조원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문익환 민통련 의장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 출처

□ 관련 기사

- 1) 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에게 장미꽃을], 강인순 경남대 명예교수, 2020.03.03.
- 2) BBC, 세계 여성의 날은 왜 3월 8일일까?,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함께 합니다.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4 타워코리아나 305호, (도룡동 385-16)
전화번호 | 070-7543-0468 (FAX. 070-0753-7043)
홈페이지 | <https://www.kupst.org/main/main.action>